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0주일 · 예수 성심 성월
제33권 28호(다해) 2013·6·9

[묵상]



예수성심을
응시하는
성녀
말가리다
<지렁토 코라도,
18c>

외아들을 잃은 한 과부,
그녀의 모든 희망도 잃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청할 수 없었으나
가엾은 마음이 드신 예수님,
눈물 닦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죽은 이에게 명령하십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도 복종하니
아들을 되돌려 받은 어머니,
삶의 희망도 되돌려 받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들을
손수 찾아오신 예수님,
“울지 마라.”고 위로하시고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며
기쁨을 되돌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위로에 의지하며
주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저희의 삶을 선물하십니다.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김수민 히메리오 & 송민영 보나 & 이범주 다니엘
주 일	(연)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최효선 안젤라, 전시웅 요한,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김금점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바라, 주용범 아브라함, 홍정숙 엘리사벳, 천서인 레지나, 김순이, 홍화선,
낮 미사	(생)김희도 아나클레토 & 안진영 가정, 이윤조 클라라, 차인수 안드레아, 김평, 임봉순 아네스 & 박재우, 정규숙 안나 & 백지자 세레나, 임재화 안나 & 박순희 토사,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 Kings) 17,17-24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1,11-1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루카(Luke) 7,11-17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12	187	231
봉헌	409	272	259
성체	나의 영혼이 잠잠히	280	307
파견	야곱의 축복	313	19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하느님 말씀과 사랑의 실천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했다거나 적어도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
해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지식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이 이중의 사랑을 건설하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성
경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젊은이들

104).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미 교회의 능동적인 구성원들이며 또한 교회의 미래를 나타
냅니다. 흔히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스스로 열려
있고 예수님을 알고자하는 진실한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는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방향
을 설정하는 데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는 진실된 질문들을 갖
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느님만이 참된 답을 주
실 수 있으십니다. 젊은이들의 세계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
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한 용기가 요구됩니다. 우
리는 젊은이들이 성경에 신뢰와 친숙함을 지니게 되도록, 그
래서 성경이 그들에게 따라갈 길을 알려 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젊은이에게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특히 또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진정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중
인들과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각자의 부르심
을 위하여 지니는 의미도 제시되어, 그 말씀이 젊은이들이 삶
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방향을 알려 주며 전적인 봉헌
으로 이끌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봉헌 생활과 사제직의 참된 성소를 위한 좋은 토
양이 됩니다. 제가 교황직을 시작하던 때에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라고 초대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리스도께
서 들어 오시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삶을 자유롭
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정 속에서만 생명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러한 우정 속에서만 인간 조건의 위대
한 가능성들이 참으로 열립니다. (……) 친애하는 젊은이들이
여,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그 백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십시오.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

파리 시내 북쪽, '몽마르트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는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을 조화시킨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871년부터 성당신축 모금 운동을 시작하여 1914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19년에 축성식을 가진 성당입니다. 지금 이 성당은 '예수 성심 성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삼위와 관련된 주제나 성인들의 이름으로 성당 이름을 정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 성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성심 신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기념한 다음에 오는 금요일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정하여 한달 동안 예수 성심을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중세에서부터 이러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경하는 예수 성심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역대 교황님들도 예수 성심 신심을 승인하고 널리 권장하는 문헌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로 이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1독서와 복음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아 예언자가 기적을 베풀어 잠시 동안 살 길을 열

어 주었지만, 결국 신세를 졌던 시몬 지방 사렙타 마을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탄식 속에서 엘리야에게 울부짖었고, 엘리야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하느님께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린 다음에서야 아이를 살려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상적인 장례를 치르고 있던 과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그 과부가 어떤 정도 하지 않았으나 먼저 다가가시어 죽은 이에게 명령하심으로써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원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에 다시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청을 올릴 때뿐만 아니라, 미처 청을 올리지 못했을 때도 늘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치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가 미처 청하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교인을 박해하는 바오로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잊지 말고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여성은 때로 낙태를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요되는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도덕적 책임은 특히, 직접·간접으로 그 여자에게 낙태를 하도록 강요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59항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요셉희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예수 성심 성월

☼ 졸업 축하합니다. ☼

6월은 각급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식이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본당의 초, 중, 고, 대학 모든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 백삼위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오늘 주일 종료

-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본당 '성령안의 생활세미나'가 나흘 동안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주일 오후 4시 파견미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세미나를 지도해주신 김세을 요셉 신부님과 봉사자들과 감사드리며 참가자들에게도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기를 기도합니다.

◆ 예비자 환영식

- 일시 : 오늘 주일(9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기간 : 6월13일~12월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교리지도 : 오마우라 수녀)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전진성사

- 일시 : 6월2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교육 :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의무참석과 함께 6월22일(토 본당신부님의 교육이 남았습니다.)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남가주 남성 제36차 꾸르실료(영어) 수료자 환영식

- 일시 : 6월9일(주일) 오후 7시 강당
- 본당 수강자 : 정진웅 필립보, 박세준 요셉,
- 본당 봉사자 : 황선홍 그레고리오, 고 조나탄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올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백삼위 본당이 주관

금년 추수감사절(11월28일) 합동 야외미사를 본당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에 걸맞은 주제표어와 미사후 2부행사 내용에 관해 여러교우들의 의견을 공모합니다.

- 주제 표어 : 한 문장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
- 2부 행사 : 미사후 각 성당간 친교를 나누는 2부 행사에 적합한 내용
- 제출 : 신중철 아브라함 사목회부회장 ☎(310)619-4343

◆ 주일학교 유스그룹 기금모금 '케이크 & 쿠키' 판매

- 일시 : 오늘주일(9일) 학생미사와 낮미사후 친교장
- 목적 : 9~12학년 유스그룹의 활동비용과 고등부 신앙대회 참석을 위한 기금 마련.
- 학생들이 직접 구운 맛있는 홈메이드 쿠키입니다.

◆ Virtus Training(청소년 보호 봉사자 필수 교육)

- 일시 : 6월16일(주일) 오후 3시~5시 강당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청소년관련 사목위원, 주일학교, 한국학교 교사, 자모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봉사자
- 강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교리교사

◆ 골수기증 등록 받습니다.(아시아골수기증협회)

- 일시 : 6월16일(주일) 학생미사와 낮미사후 회의실
- 대상 : 만 18세~44세(1969년~1995년생)
- 문의 :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백삼위 탁구동호회 회원 모집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3시 강당
- 회비 : 연 \$50
- 문의 : 동호회장 김용스테파노 ☎(310)926-2248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6월9일(주일) : 토런스 서1반(짜장밥 \$3)
* 주일학교(7학년 파스타)
- 6월16일(주일) : 토런스 남1반(소고기국밥 \$3)
* 주일학교(자모회임원+아버지들 핫도그 & 칩)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구자운	권진혁	김교복	김선제	김성현
	김영경	김 욱	김원모	김종렬	김주량	김형순
	남성철	모은기	박상준	박씨니	박완철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배기엽	변해경	소순명
	오세원	유영균	이근모	이상규	이형삼	장수영
	전정일	전정자	정규숙	조영희	주대중	최기호
	최재은	최진수	최태훈	현석주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5,335
주일미사 헌금: \$2,976	2차헌금 : \$1,036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김교복	김선제	김 욱	김원모
	김주량	남성철	모은기	박상준	박씨니	박완철
	박인식	박정희	박현주	방정복	변해경	소순명
	오세원	유영균	이근모	이상규	이형삼	전정일
	전정자	정규숙	조영희	주대중	최기호	최재은
	최진수	최태훈	영희가보라			
합사헌금: 박미경	합계 : \$3,315					

공지사항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 주일학교 은총시장

- 은총시장 : 6월16일(주일) * 대상 : 유치원부터 6학년
- 상품이나 물적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장 ☎(213)258-8665

◆ 2013-2014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6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8일부터 등록비 인상(\$140, \$120, \$10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2013-2014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1학기 등록 받습니다.

- 6월내 4주간(2,9,16,23일) 등록시 \$160로 할인
- 8월18일 이후 등록시 \$200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 '글로벌 시대의 한국어 교육' 세미나

- 일시 : 6월16일(주일) 오후 1시30분
- 강사 : L. A. 3가 초등학교 교장 Dr.수지 오
- 대상 : 한국학교, 주일학교 학부모님 및 교육에 관심있는 분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8일(금)~30일(주일), 테미콜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6월16일 마감)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6월9일 마감)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6/15(토) 오후 6시30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6/15(토) 오후 7시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6/22(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진형태 요한 424-241-5988 6/16(주일) 베어캐년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김현숙 벨레데타 625-905-4114 6/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6/11(화) 오전 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6/29(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6/15(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젤마 818-640-3656	유영군 우르바노 985-2882 6/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정훈모 바오로 377-1271 6/14(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4(금) 오후 7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이귀란 아녜스 377-6752 6/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 주 단체모임

아버지날, 사목회장단모임

오후 1시

남가주 소식

◆ LA 성 아그네스 성당 제14기 커피 교육

- 일시 : 6월10일(월) 오후 1시, 13일(목) 오후 6시30분
- 지도 :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강료 \$200 ☎(323)731-4433

◆ 제19차 선택 주말 신청 받습니다.

- 일시 : 7월19일(금)~21일(주일),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
- 대상 : 미혼남녀(23세~36세) * 지도 : 김종기 요셉 신부
- 신청 : 남가주선택협의회총대표 홍재훈이삭 ☎(818)282-0770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6월15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데레사 수녀

이름값 하기

“비야 어디 갔어요?”

“왜 사무실에서 술을 찾아요?”

“네? 전 긴급구호 총책임자 비야를 찾고 있는데요.”

“앗, 난 비어(맥주)를 찾는 줄 알았네요. 하하하”

현장근무 때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제 이름에 얽힌 얘기는 많고도 많습니다. 남수단에서도 그랬습니다. 카메룬 직원 은 30년 독재 중인 대통령 이름과 같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 직원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기 딸 이름과 같으며 좋아했습니다. 살인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케냐 북부에서는 주민들이 저를 다루어 겨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지역 말로 한비아는 ‘커다란 물항아리’라는 뜻이라나요? 그날 밤,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와서 얼떨결에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야는 ‘여보세요’, ‘빨리 해요’, ‘이리 오세요’ 등 수십 가지의 뜻을 가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상금은 열댓 명의 남자들이 사무실에 돌이닥쳐 자기 마을에는 구호식량이 오지 않았다고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직원이 자리에 없어 제가 그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성호를 긋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악수를 청하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야입니다.”라고 했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남자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닙니까? 하기가 사람 이름이 “여보세요.”라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한바탕 웃고 나니 분위기가 좋아져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덕을 톡톡히 본 거죠.

비야는 제 세례명입니다. 지금은 ‘비야’라고만 쓰지만, 맞춤법 통일 전에는 비야, 뻐야, 뻐아, 비아를 섞어 썼습니다. 그중에 저는 비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날 비(飛), 들 야(野)라는 한문 이름으로 개명, 공식적인 본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한’씨니 망정이지 ‘공’씨나 ‘변’씨였으면 ‘공비야’, ‘변비야’가 될 뻔했습니다.

세례명을 본명으로 쓰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나, 늘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야’는 이태리 성녀 이름으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늘 ‘더 잘해야 했어’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 꼬여 당황할 때면 하느님은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나, 하며 마음 무거운 날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로 이 성경구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들다 하더라도 사랑이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 13.3 / 공동번역).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답은 사랑입니다.

긴박한 구호 현장에서 있는 힘을 다해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세례 때 받은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아무리 애쓴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만, 오직 사랑으로만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니까요. 하느님이 주신 여러분의 세례명, 지금 사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나요?

◆한비아 비아 /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 마음에 평화를 얻기위해 성당에 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마음에는 갈등이 생기고, 상처도 생깁니다.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

☞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평화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께 이 잔을 거두어 달라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받아내셨습니다.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셨기에. 아버지의 뜻도 끝까지 믿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신앙인의 평화는 바로 그 믿음에 뿌리를 둡니다.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 와도 받아들이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늘 깨어질까 두려운 세상의 평화 속에 숨으려 하지 말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한국천주교회 통계(2012년) 발행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2’에 따르면, 2012년 12월31일 기준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수는 536만 1,369명으로 인구대비 10.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본당 수는 1,664개이고 공소는 796개입니다. 성직자 수는 총 4,788명으로 추기경 1명을 포함한 주교 34명, 한국인 신부 4,578명, 외국인 신부 17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도자 수는 총 11,736명으로 남자수도자 1,569명, 여자수도자 10,16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